

## 마태오 복음서 5장

### 산상 설교(5-7장)

마태오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모아,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의로움”을 제시하는 하나의 ‘시작 연설’로 5~7장을 꾸며 놓았다. 이 산상 설교는 그리스도교의 ‘대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설교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1 예수님께서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sup>2)</sup>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2 예수님께서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 1) “산”은 하느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 “산”은 곧 구약성경의 시나이산을, “예수님”은 모세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모세는 산 위에서 하느님의 계명이 적힌 판을 받고 내려오는 데 반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산에 오르신 다음 마치 옥좌에 좌정하시듯 자리를 잡고 앉으시어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가르치시고 명령을 내리신다.
- 2) “제자들”은 모세와 함께 산에 시나이산에 오른 이스라엘 원로들을,<sup>3)</sup> 예수님께서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고통을 낮게 해 주신 “그 군중”은 시나이산 아래 정렬해 있던 하느님의 백성을 상기시킨다.<sup>4)</sup> 아무튼 마태오는 ‘군중’과 ‘제자들’을 구분한다. ‘군중’은 이러저런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본받으며 실천하려는 자들이다.
- 3) 마태오는 산상 설교를 하나의 가르침으로 제시한다. 예수님께서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미 선포하시고 나서, 그것에 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뜻이다.
- 4) 신앙인은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

### 참행복(루카 6,20-23)

이 ‘행복 선언’은 특정한 은혜를 받은 이에게 축하하거나, 특정 범주에 드는 이들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 쓰여 온 방식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

1)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70쪽, 각주 1 참조.

2) 마르 3,13 : 예수님께서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루카 6,12 :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3) 탈출 24,1 : 주님께서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일흔 명을 데리고 주님에게 올라와, 멀찍이 서서 경배하여라.

4) 위, 각주 2.

하여, 어떠한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가장 유리한 상황에 있는지를 밝히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파견되신 메시아로 드러내신다. 이들이 하느님께서 선호하시는 이들로서, 현세에서는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으면서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린 사람들이다. 마태오 복음에서는 내적인 가난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조건임을 밝힌다.<sup>5)</sup>

### 3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1) ”마음“은 인간의 중심, 더 나아가서는 인간 전체를 뜻한다.<sup>6)</sup>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영적 시련을 받으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에만 의지하도록 단련 받은 사람들이다.<sup>7)</sup>
- 2)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교만하여 하느님을 찾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여 늘 하느님만을 의지한다. 믿음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는다. 하느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sup>8)</sup>

### 4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 1) “슬퍼하는 사람”은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아니고, 현세에서 사회적 억압의 희생물이 되어 이승에서 보상의 원칙에 따라 변상을 받게 되는 사람도 아니다. 인간을 그 고난에서 구원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최종적 위로’를 고대하는 이들이다.<sup>9)</sup>
- 2)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는 회개한다. 회개하는 자는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sup>10)</sup>

### 5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sup>11)</sup>

---

5) 앞, 각주 4 참조.

6) 시편 34,19 : 주님께서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낮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7) 위, 각주 5 참조.

8) 잠언 18,12 : 파멸에 앞서 마음의 오만이 있고 영광에 앞서 겸손이 있다.

9) 위, 각주 7.

이사 61,2 :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10) 시편 51,19 : 하느님께 맞갖은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11) 창세 13,15 : 네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 1) “가난한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도, 단순히 성품이 그러하다기보다, 냉혹한 사회적·종교적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그리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도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드러내신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그러해야 한다.<sup>12)</sup>
- 2) “땅”은 하느님 나라를 가리키는 ‘약속의 땅’을 뜻한다.
- 3) 신앙인은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sup>13)</sup> 온유는 또한 성령의 열매이다.<sup>14)</sup>

## 6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sup>15)</sup>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 1) “의로움”은 종말의 구원을 뜻하는 하느님의 의로움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정의만도 아니다. 이는 나날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오는 행위의 의로움일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인간 정의의 근원이다.<sup>16)</sup>
- 2) “의로움”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흡족할 것이다. 곧 구원으로 나아간다.

## 7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sup>17)</sup>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비는 하느님의 마음이다.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신앙인은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

12) 위, 70~71쪽, 각주 8.

2코린 10,1 :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할 때에는 겸손하고 떨어져 있을 때에는 대담하다고들 하는 나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직접 권고합니다.

갈라 5,23 :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티토 3,2 : 남을 중상하지 말고 온순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이를 아주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1베드 3,16 :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13) 마태 11,29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14) 갈라 5,22-23 :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15) 시편 42,3 :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합니다. 그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뵈울 수 있겠습니까?

이사 51,1 : 내 말을 들어라,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들과 주님을 찾는 이들과.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반석을 우러러보고 너희가 파내 올려진 저수 동굴을 쳐다보아라.

16) 위, 71쪽, 각주 10.

17) 야고 2,13 :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 8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sup>18)</sup>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sup>19)</sup>

마음이 깨끗한 자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죄의 용서를 받은 자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해야 하느님 보시기에 좋다. 곧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sup>20)</sup>

## 9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sup>21)</sup>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 1) 평화는 하느님과 화해함으로써 온다. 첫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느님과 단절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느님과 화해를 가져왔다. 그리고 사람과의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 2)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은, 본디 자녀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나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는 것이다.<sup>22)</sup>
- 3)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름을 모두 받았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 10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sup>23)</sup>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1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sup>24)</sup>

---

18) 시편 24,4 :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옳지 않은 것에 정신을 쏟지 않는 이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이라네.

19) 탈출 33,20 :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히브 12,14 :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뵈지 못할 것입니다.

20) 마태 15,18-19 :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21) 1열왕 5,26 :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내려 주시어,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자리 잡았고, 그 둘은 조약을 맺었다.

야고 3,18 :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22) 위, 71쪽, 각주 12 참조.

23) 1베드 3,14 : 그러나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24) 사도 5,41 :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 나왔다.

필리 1,29 :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콜로 1,24 :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sup>25)</sup>**

- 1) “의로움은”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며 의롭게 사는 이는 박해도 받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임을 내다 보신 것이다.
- 2)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다. 바로 하늘의 큰 상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의 삶이 그러하였고, 제자들의 삶이 그러하였다.
- 3) 어떠한 어려움이나 박해가 다가와도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소금과 빛(마르 9,49-50; 루카 14,34-35)**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sup>26)</sup>**

- 1)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을 보존하는 특성을 지녀, ”소금 계약“처럼 어떠한 약속이나 계약의 향구한 갈치를 의미하기애 이른다. 마태오는 신앙인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한다. 곧 제자나 신앙인은 사람들의 세상을 하느님과 맺은 계약 안에 보존하고 또 그 세상에 ‘살맛’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질 수밖에 없다.<sup>27)</sup>
- 2) 신앙인은 복음에 충실한 삶을 통해 세상에 ‘살맛’을 주어야 하고, 거룩한 삶의 모범으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sup>28)</sup>**

---

25) 2역대 36,16 :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사도 7,52 :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26) 레위 2,13 : 너희가 곡식 제물로 바치는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 너희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소금을 빼놓아서 안 된다. 너희의 모든 예물과 함께 소금도 바쳐야 한다.

27) 위, 71 쪽, 각주 16 참조.

28) 요한 8,12 :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필리 2,15 :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 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5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16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sup>29)</sup>

- 1) 신앙인의 삶을 세상을 비추는 삶이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바른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
- 2) 옛날 근동에서 일반 사람들의 집은 단칸으로 이루어졌기에, 등경 위에 등불을 켜 놓으면 온 방을 환히 비출 수 있었다.
- 3) 신앙인의 삶은 감추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바르고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

## 예수님과 율법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이하러 왔다.”<sup>30)</sup>

- 1) ‘율법이나 예언서’들은 곧 구약성경을 일컫는다.
- 2) ‘완성하다’는 ‘이루다’, ‘채우다’를 뜻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말씀이 단순히 이루어 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그 말씀들을 완성이로 이끌어 종교 생활의 법전 곧 율법에 참뜻을 부여하려고 하신다. 그리하여 율법이 근원적인 완성에 이르고 또 애초의 단순성을 다시 찾게 만드신다.<sup>31)</sup>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19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

---

29) 1코린 10,31 :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에페 5,8-9 :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1베드 2,12 : 이교인들 가운데에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래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지켜보고,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30) 로마 3,31 :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31) 위, 72쪽, 각주 21 참조.

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sup>32)</sup>

”가장 작은 자“나 ”큰 사람“은 하느님 나라의 어떤 지위나 계급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위의 잘잘못을 가리는 표현이다.<sup>33)</sup>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sup>34)</sup>**

여기서 “의로움”은 6절과 10절에서처럼 하느님 율법에 대한 충실성을 말한다.

## 화해하여라

**21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sup>35)</sup>**

1) 여기서 ‘살인’은 개인적인 복수처럼 십계명이 금하는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고,<sup>36)</sup> ”재판“은 결국 하느님의 재판을 말한다.

2) “옛사람들”은 모세와 그 후대의 사람들, 곧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가리킨다.<sup>37)</sup>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sup>38)</sup>**

---

32) 야고 2,10 :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된다.

33) 위, 각주 26 참조.

34) 레위 19,15 :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가난한 이라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이라고 우대해서도 안 된다. 너희 동족을 정의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필리 3,9 :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35) 로마 13,9 :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야고 2,11 :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분께서 또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36) 탈출 20,13 ; 신명 5,17 : 살인해서는 안 된다.

37) 위, 73쪽, 각주 30.

38) 1요한 3,15 :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에페 4,26 :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야고 1,19-20 :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 1) “바보”는 ‘머리고 빈 놈’이라는 욕이고, “멍청이”는 평범한 욕이지만, 유다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심한 욕이 될 수 있다. 곧 ‘하느님을 모르는 놈’식의 욕이 된다.<sup>39)</sup> 까닭 없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법정 곧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2)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모두 71명으로 이루어진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가 있었고, 지방에는 33명으로 이루어진 의회가 있었다.<sup>40)</sup>

-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예수님께서서는 진정한 삶을 요구하신다.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인간관계인 것이다. 곧 신앙인의 참된 삶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한 것이다.

- 25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일론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 26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신앙인은 선한 마음을 품고 남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웃과 화목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줬다면 끝까지 기워 갚아야 한다.

## 극기하여라

- 27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sup>41)</sup>
-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

---

말하기는 더디 하고 분노하기도 더디 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39) 위, 각주 32,34 참조.

40) 앞, 각주 33.

41) 로마 13,9 :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야고 2,11 :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분께서 또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옛날 유다에서는 약혼도 혼인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지녔다. 그래서 "여자"는 혼인한 자만이 아니라 약혼한 여자까지도 포한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자에 대한 남자의 모든 욕망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남의 아내를 이미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적극적인 탐욕을 단죄하시는 것이다.<sup>42)</sup> 오늘날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29 네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 30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 1) '죄짓게 하다'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다'는 뜻이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나 계기는 많다.<sup>43)</sup> 먼저 예수님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세상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sup>44)</sup>
- 2) "눈"이나 "손"은 마음이 결정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기관이다. 그래서 지체를 빼거나 자라버리라는 말은 곧 마음을 그렇게 하라는 뜻이다. <sup>45)</sup>
- 3) 우리 몸의 지체들이 죄를 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말씀을 전하는 도구야 한다.<sup>46)</sup> 지옥은 죄의 결과를 뜻한다.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19,9; 마르 10,11-12; 루카 16,18)

- 31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sup>47)</sup>
- 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sup>48)</sup>

42) 위, 각주 40.

43) 이사 8,14-15 :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 성소가 되시고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덫과 올가미가 되시리라. 많은 이들이 거기에 걸려 비틀거리고 넘어져서 깨어지며 걸려들어 사로잡히리라.  
로마 9,33 :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부딪쳐 쓰러지게 하는 바위를 놓는다.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44) 위, 74쪽, 각주 41.

45) 앞, 각주 42.

46) 로마 6,13 :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47) 신명 24,1 :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 1) 현대적 의미의 이혼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었던 옛날 법을 말한다.<sup>49)</sup>
- 2) 불륜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간음하는 것이고, 법에 따른 불법적 관계를 말한다. 중요한 것임 마태오 복음사가가 혼인의 근본적인 불가 해소성을 상기시키는 것이다.<sup>50)</sup>
- 3) 현대에는 위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파탄에 이른 혼인이 많이 있다. 신앙인들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용기를 주어야 한다.

## 정직하여라

- 33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sup>51)</sup>
-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sup>52)</sup>
- 35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sup>53)</sup>
-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37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sup>54)</sup>

48) 1코린 7,10-11 :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49) 위, 각주 43.

50) 앞, 각주 44 참조.

51) 레위 19,12 :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나는 주님이다.

민수 30,3 : 남자가 주님께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하여 스스로 서약을 할 경우, 자기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제 입에서 나온 것을 다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신명 23,22 :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서원을 할 경우, 그것을 미루지 말고 채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실 것이고, 너희에게는 죄가 될 것이다.

52) 이사 66,1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이 나의 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지어 바칠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마태 23,22 :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사도 7,49 : ‘하늘이 나의 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 주겠다는 것이냐?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53) 시편 48,3 : 아름답게 솟아오른 그 산은 온 누리의 기쁨이요 복벽의 맨 끝 시온산은 대왕님의 도읍이라네.

54) 2코린 1,17-20 :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서 변덕이라도 부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속된 동기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예, 예!” 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한다는 말입니까?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곧 나와 실바누스와 티모테

- 1) 입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한다. 곧 ‘너의 말은 무슨 맹세로써 강조할 필요 없이 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5)</sup>
- 2) 맹세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곧 헛되이 경솔하게 하느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맹세해서는 안 된다.
- 3)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해서도 안 된다.

### 폭력을 포기하여라(루카 6,29-30)

#### 38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sup>56)</sup>

이는 율법에서 공정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진정한 공정은 하느님 심판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 1) 악에 대한 무저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맞서다’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응수이든, 일일이 막대응하는 것을 뜻한다.<sup>57)</sup>
- 2)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행위이다.<sup>58)</sup>

#### 40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겹옷까지 내주어라.<sup>59)</sup>

---

오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시면서 “아니요!”도 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늘 “예!”만 있을 따름입니다.

야고 5,12 : 나의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그 밖의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55) 위, 74-75쪽, 각주 48 참조.

56) 탈출 21,23-25 :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레위 24,20 :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자신도 상해를 입어야 한다.

신명 19,21 :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57) 위, 각주 50.

58) 앞, 각주 51.

59) 로마 12,19 :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코린 6,7 :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 주지 않습니까?

남의 "속옷"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요구에도 절대로 맞서지 말고 '겉옷'도 내주라고 말씀하신다. "겉옷"은 밤에 이불로도 쓰였다. 그래서 율법은 그것을 담보로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한다.<sup>60)</sup>

#### 41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천 걸음"은 로마의 거리 측정 단위였다. 오늘날 약 1,500미터에 달한다. 영어의 마일이 여기서 유래했다.<sup>61)</sup>

#### 42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을 베풀어야 한다. 인색해서는 안 된다. 선을 베풀 때 악인도 하느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 원수를 사랑하여라(루카 6,27-28.32-36)

#### 43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sup>62)</sup>

####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sup>63)</sup>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은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아마도 종교 공동체의 원수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적인 격정보다는 집단적인 대립을 의미한다.<sup>64)</sup> 이는 예수님께서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약의 가르침을 더욱 강조해서 가르치신 것이라 할 수 있다

#### 45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

---

60) 위, 각주 52.

탈출 22,25 :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신명 24,12 : 그 사람이 가난하면, 너희는 그의 담보물을 잡아 둔 채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

61) 앞, 각주 53 참조.

62) 레위 19,18 : 너희는 동포에게 앙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63) 잠언 25,21 :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주어라.

로마 12,20 :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1코린 4,12-13 : 우리 손으로 애써 일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축복해 주고 박해를 하면 견디어 내고 중상을 하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64) 위, 각주 54 참조.

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하느님의 자녀 됨’은 신앙인들의 실존 전체가 새로운 상태나 새로운 신분으로 넘어감을 뜻한다.

**46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47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 1)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사랑의 실천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한결같아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
- 2) “상”은 잘한 일에 대한 상에서부터 노동에 대한 품삯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미를 지닌다. 진정한 ‘상’은 인간이 요구로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선하심에서만 나오는 것이다.<sup>65)</sup>
- 3) 당시 “세리들”은 일반 대중에게 경멸을 받았다. 그들은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공공연한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간주하였다.<sup>66)</sup>

**48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1) 제자들의 완전성은 하느님의 완전성에 상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실천적 완전성, 곧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의 완전성이다.<sup>67)</sup>
- 2) 신앙인의 삶의 기준은 하느님에게 있다. “완전한 사람”이란 하느님을 닮아 누구에게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 5장부터 각주 ‘위’와 ‘앞’의 표기가 바뀌었음.

---

65) 앞, 각주 56 참조.

66) 앞, 76쪽, 각주 57 참조.

67) 앞, 각주 58 참조.